

“멋 내는 건 나랑 거리가 멀어...아직도 카메라가 어색해요”



연기자 류덕환은 다섯 번째 시즌까지 제작된 OCN 드라마 '신의 퀴즈' 시리즈에 전부 참여했다. 최근 종영한 시즌5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그는 “고민과 부담이 끊이지 않는 캐릭터여서 어렵다는 사실을 매년 깨닫는다”고 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OCN 드라마 '신의 퀴즈:리부트' 마친 류덕환

류덕환(32)은 '영리한' 연기자라고 할 수 있다. 연기가 아닌 것으로는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한다. 말 한 마디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리 꾸며도”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연기”라고 했다. 연기라는 ‘한 우물만 파는’ 게 자신의 ‘최적화한 장점’이라 믿는 그가 최근 ‘기술’을 습득했다. 뭉든 한 번 더 참고 행동하기다. 이를 통해 연기는 물론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시즌1부터 출연한 '신의 퀴즈' 애착 커 4년만에 시즌5, 흐름 끊기지않게 노력 데뷔 27년차지만 연기는 항상 어려워

●“데뷔 27년차, 연기는 아직도 어려워”

류덕환은 아직도 자신의 연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 못 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화보 촬영 등을 위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건 “취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제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다. 하하! 그냥 창피하다.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칭찬이나 지적에 대한 글이 머릿속에 남아 다음에 연기하는 데 어떻게든 티가 난다. 시청자 반응에 피드백하는 것도 팬 서비스이지만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진짜 궁금하지만 참는 거다.”

최근 종영한 케이블채널 OCN '신의 퀴즈:리부트'(시즌5)를 통해서도 긴 기다림을 경험했다. 군 복무 전 시즌4에 출연하고 2017년 제대 후 시즌5에 출연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류덕환은 2010년 시작한 '신의 퀴즈' 시즌1부터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그는 “항상 다음 시즌에 출연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않는다”며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한 제작진이 의리가 있다면 불러주지 않을까” 농담을 던졌다. 이내 진심을 담아 “복무 시절 상병으로 진급하고 휴가 때 박재범 작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안해주셨다”며 “군대에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작품이 '신의 퀴즈'였다”고 떠올렸다.

기쁨만큼 부담감도 컸다. 시즌의 간격이 4년인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캐릭터에 변화를 줘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작가와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를 자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철칙이 있었다. 대사를 구사하는 데 형용사나 동사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되 단어는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제 역량대로 했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이어갔다. '그래서'와 '그리고' 등 접속사를 많이 넣어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미리 상의한 다음에 이야기를 맞춰나갔다. 제 마음대로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토대로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했다.”

류덕환은 한 드라마를 시즌5까지 끌어온 결과가 무색하리만큼 연기를 두려워한다. 1992년 MBC 'TV유치원 뽀빠뽀'로 처음 방송

을 경험한 뒤 26년 이상 활동해오며 방송, 영화, 연극무대를 누비고 있지만 많은 연기자들이 그렇듯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연기라는 말에 동감하고 있다. 그만큼 '신의 퀴즈'로 받는 부담감과 압박감도 크다.

“드라마 종영 후 한 달 동안 '신'이라는 글자가 보기 싫을 정도였다. 하하!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운 캐릭터여서 아픔과 고통을 준다. 스스로 많이 지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 도전하고 싶지 않을까.”

●“‘꼰대’? 나 꼰대라고 생각해”

류덕환은 군대를 다녀온 후 “모든 면에서 참게 됐다”고 했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표출하게 됐다. 과거에는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류덕환은 “저는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와 어른들의 이야기는 다 맛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꼰대라고 한다면 꼰대 맞다”는 그는 어린시절 MBC '정월일기'에 출연하며 최불암으로부터 받은 조언을 잊지 않고 있다. “다양한 친구를 사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 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인문계 고교를 선택했다.

“저는 응원한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먼저 얘기 하기가 두렵다. 그래서 제 생각을 꺼내기보다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먼저 묻는다. 일단 제 생각을 숨기고 상대의 의중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바로 제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때는 노래방을 찾아야죠”라며 웃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류덕환

▲1987년 6월12일생 ▲2013년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1992년 MBC 'TV유치원 뽀빠뽀'로 데뷔 ▲2006년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청룡영화상·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남우상, 2007년 판타지아 영화제 남우주연상 ▲영화 '아들' '우리동네' '그림자 살인' '위대한 소원' 등 ▲2010년부터 2019년까지 OCN '신의 퀴즈' 시즌1~5 주연 ▲연극 '낯신' '에쿠우스' '웃음의 대학' '서툰 사람들' 등 참여

연예뉴스 HO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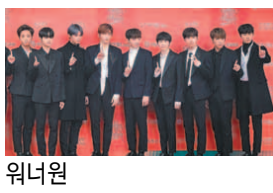
개그맨 박성광 '포차 메뉴판' 논란



박성광

개그맨 박성광이 '포차 메뉴판' 논란에 휘말려 사과했다. 15일 박성광은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메뉴판과 네온사인 간판이 선정적이라는 비난 섞인 논란을 모았다. 이에 그는 소속사 SM C&O를 통해 “2년 전 지인이 제안한 사업에 성명권 사용을 허락하고, 홍보에 한해 운영에 참여했다. 지인이 사업체의 기획과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다”면서 2월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암표 방지 대응법' 추진 가능성



위너원

가수 콘서트 암표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암표 방지 대응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다루겠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그룹 위너원의 콘서트 티켓이 온라인에서 1000만여원으로까지 불법 거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썩코', 베를린영화제 클래식 부문 초청



임권택 감독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인 '썩코'가 2월7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제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클래식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썩코'는 새롭게 디지털 복원한 버전으로 상영된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클래식 부문은 최근 디지털 복원된 세계 유수의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이다. '썩코'는 한국전쟁에서 빨치산과 토벌대장으로 만난 두 남자의 30년에 걸친 악연을 그린 이야기다.

영화 '악녀', 미국드라마로 리메이크



영화 '악녀'

영화 '악녀'가 미국 드라마로 리메이크된다. 투자배급사 NEW의 해외세일즈사 콘텐츠 판다는 15일 '위킹데드'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스카이라이프 엔터테인먼트와 '악녀'의 TV시리즈 제작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제목은 '빌런니스(villainess)'로, 영화 '악녀'의 스토리에 바탕을 두고 미국 LA 비밀조직에서 살인 병기로 키워진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퀸 헌정밴드 '퀸 트리뷰트' 내달 내한



퀸

록밴드 퀸의 헌정밴드인 퀸 트리뷰트가 2월 내한 공연한다. 이들은 2월9일 서울 여의도 KBS홀을 시작으로 16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17일 광주 김대중센터 다목적홀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헌정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퀸 팬클럽 '랩소디 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퀸 헌정밴드다. 이번 공연과 함께 퀸의 1986년 웰리스타디움 공연 등 미공개 사진 30점도 공연장 로비에서 공개한다.